



여기, 제주가 주목한 세계의 젊은 관악인

관악·타악콩쿠르 11명 입상

베이스 트롬본 1위 장필선
유포니움 1위 슈피스 테윈
튜바 1위 디아스 엔히키
타악기 1위는 뢰 첸쉬안



제21회 제주국제관악·타악콩쿠르 1위 입상자. 왼쪽부터 장필선(베이스 트롬본)·디아스 엔히키(튜바)·러 첸쉬안(타악기)·슈피스 테윈(유포니움).

베이스 트롬본의 장필선(한국), 유포니움의 슈피스 테윈(프랑스), 튜바의 디아스 엔히키(포르투갈), 타악기의 뢰 첸쉬안(중국). 제21회 제주국제관악·타악콩쿠르 1위 입상자들이다.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1·2차 경연과 결선을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

지난 14일 저녁 문예회관에서 열린 입상자 음악회 전 기자들과 만

난 부문별 4명의 우승자들은 차례로 소감을 밝혔다. 디아스 엔히키는 “결선에서 오케스트라 반주로 연주를 했는데 나중에 솔리스트로서 활동할 때 매우 큰 경험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러 첸쉬안은 “콩쿠르를 준비하면서 매일 10시간 넘게 연습했다. 음악적 동기를 일깨우고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

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장필선은 “베이스 트롬본 역대 수상자 중 한국분들이 평소 존경하는 선생님들이다. 그분들의 뒤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영광이다”라며 기쁨을 전했다. “행복하다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는 슈피스 테윈은 “내 이력서의 1위 입상을 넘어 친구들을 만나고 그 과정에서

서로 배우고 함께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올해 콩쿠르엔 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0개국의 연주자들이 참가했다.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베이스 트롬본 ▷1위=장필선 ▷2위=왕 쯔언(중국) ▷3위=리우 샤오웨이(중국) ▶유포니움 ▷1위=슈피스 테윈 ▷2위=라마르 줄리안(콜롬비아) ▷3위=루셀 오엘리앵(프랑스) ▶튜바 ▷1위=디아스 엔히키 ▷2위=모뉴슈 우갈데 안도니(스페인) ▷3위=스타인 디에고(미국) ▶타악기 ▷1위=뢰 첸쉬안 ▷2위=진성민(한국).

제주국제관악·타악콩쿠르는 2009년 WFIMC(국제음악콩쿠르세계연맹)에 가입됐다. 1위 수상자는 다음 해 관악제에 초청된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엔스 린더만(오른쪽) 예술감독과 아담 프레이 콩쿠르 심사위원장.

관악제 조직위 제공

“세계 최고 밴드 잇단 제주 방문… 탐동 해변공연장 그대로 뒀야”

엔스 린더만 관악제 예술감독
“유명 뮤지션 제주에 지속 관심”

아담 프레이 콩쿠르 심사위원장
“관악의 모든 것 경험 가능 행사”

“2022년 영국 코리밴드, 2024년 포든스밴드에 이어 올해는 단연컨대 세계 최고의 브라스밴드라고 할 수 있는 BBBC(베틀크리크 브라스밴드)가 왔다. 이런 특출한 팀들의 공연은 관악제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엔스 린더만) “해를 거듭할수록 콩쿠르 참가자들의 기술적인 부분, 예술성이 향상되고 있어서 매우 기쁘다.”(아담 프레이)

지난 14일 제21회 제주국제관악·타악콩쿠르 입상자 음악회 전 문예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엔스 린더만 제주국제관악제 예술감독과 아담 프레이 콩쿠르 심사위원장. 이들은 올해 관악제를 그렇게 평했다.

2000년 제1회 콩쿠르 유포니움 1위 수상자였던 아담 프레이 심사위원장은 이번에 유포니움·튜바 경연자들이 출연한 ‘콩쿠르 참가자 콰이어’를 좋은 프로그램으로 꼽았다. 마스터 클래스 역시 참가자들의 교육적인 면에서 매우 유용하며 “제주처럼 관악에 대한 모든 걸 경험할 수 있는 행사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년부터 예술감독으로 활동 중인 엔스 린더만은 “관악 파트는 남자들이 많은데 4년 전부터 콩쿠

르 참가자만이 아니라 심사위원들도 여성 참여가 늘었다”며 “유명 관악 뮤지션과 심사위원들이 제주에 오고 싶다면 연락을 많이 준다. 그들은 제주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직접 보고 싶어 하고 본받고 싶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들이 아이들과 함께 관악제를 찾은 모습이 훌륭해 보였다”는 그는 “보는 것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연주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 다양한 장르의 무대로 관객들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최근 불거진 제주도의 해변공연장 철거 계획안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두 사람은 이를 두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엔스 린더만 예술감독은 “해변가에 그런 형태의 공연장이 지어진 사례는 세계적으로 거의 없을 것이다. 감히 말씀드리면 그 공연장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 많은 대중들이 모일 수 있고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 여겨진다. 그곳에 어떤 빌딩이 세워지거나 다른 건축물이 들어온다면 제주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아담 프레이 심사위원장은 예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곳으로서 해변공연장의 존재 이유를 언급하며 “심사위원들은 해변공연장이 관악제의 핵심 장소이자 특별한 공간이라는 걸 알고 있다. 만일 해변공연장이 미국에 있었다면 편지를 쓰고 영상을 찍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철거 반대 메시지를 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전선희기자

콩쿠르 콰이어 호평… 아시아 관악축제 반쪽

국제관악제 여름 시즌 결산

콩쿠르 참가자 연주회 첫선

제주·대만 초등 관악단 교류

중·일 관악 밴드 참가팀 없어

U-13 관악 경연대회로 막이 열린 뒤 혼신을 바친 모듬북 연주가 어우러진 광복절 경축 음악회로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7~15일 펼쳐진 2026 제주국제관악제 여름 시즌이다. 제21회 제주국제관악·타악콩쿠르가 함께 열린 여름 시즌은 미국 BBBC(베틀크리크 브라스밴드)의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곳곳에서 인상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반면 일부 프로그램은 취지를 온전히 살리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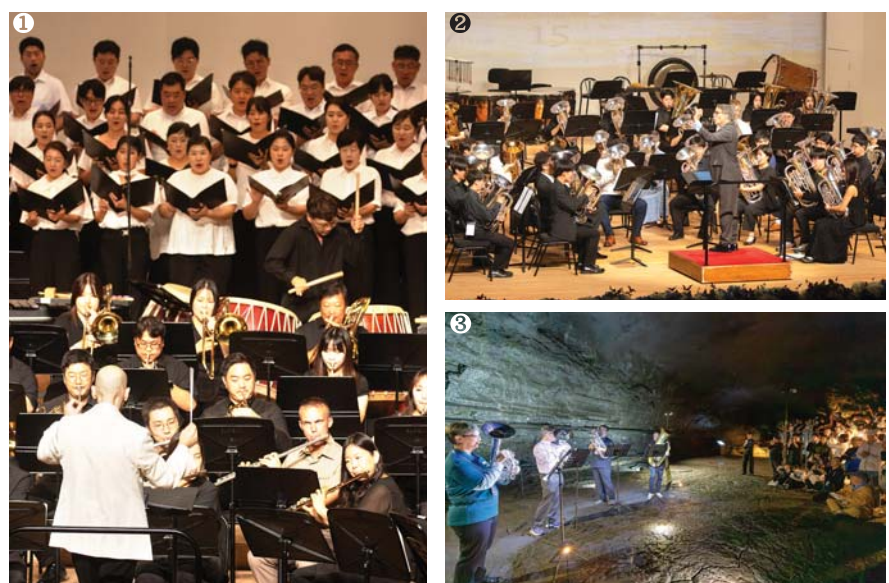
▷1등만 기억하지 않는다=지난 14일 저녁 문예회관에서 진행한 콩쿠르 콰이어. 심사위원들이 제언해 온 무대로 올해 처음 성사됐다. 유포니움·튜바 부문 참가자 중 희망자 70여 명이 1위 입상자 음악회 전 연주에 나섰다. 비록 결선에 진

출하지 못했지만 1·2차 경연에서 최선을 다한 그들이었다. 지휘봉을 잡은 아담 프레이 심사위원장은 “앞으로 이분들의 연주를 듣게 될 것”이라며 앞날을 격려했다.

관악제 콩쿠르는 1차 예선부터 직접 제주에 와서 치른다. 올해 최종 참가 인원은 20개국 285명(베이스 트롬본 38, 유포니움 92, 튜바 91, 타악기 64)이다.

▷관악 꿈나무 교류·만장굴 연주=지난 9일 선홍초 교정에서 학부모, 지역민들의 응원 속에 대만 원더초 관악단과 선홍푸른울림 브라스밴드의 교류 연주회가 개최됐다. 제주콘텐츠진흥원 밤마실 극장과 연계한 행사로 관악제 조직위는 향후 다른 기관과 협업한 프로그램을 늘릴 것이라고 했다. 내년엔 독일 청소년 관악단 교류 연주를 계획하고 있다.

콩쿠르 심사위원과 참가자 사전 신청을 받아 지난 15일 오전 세계자연유산 투어도 운영했다. 세계음악계 유력 인사들에게 제주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서다. 만장굴에선



① 지난 15일 문예회관에서 펼친 광복절 경축 음악회 마지막 순서에 관악제 연합관악단과 합창·모듬북 연주가 함께하는 ‘아, 대한민국’을 공연하고 있다. ② 지난 14일 문예회관에서 열린 콩쿠르 참가자 콰이어. 유포니움·튜바 참가자 중 희망자 70여 명이 연주하고 있다. ③ 지난 15일 제주 세계유산 투어로 진행한 콩쿠르 심사위원들의 만장굴 연주. 관악제 조직위 제공

천연 동굴을 무대 삼아 심사위원들의 연주가 이뤄졌다.

▷아시아 관악페스티벌 취지 반감=아시아 각국 관악 색깔을 드러내는 공연으로 지난 11·13일 해변공연장에서 첫선을 보였으나 그곳에 일본과 중국 밴드는 없었다. 주최 측은 두 나라 관악단 초청을 위해 힘썼지만 불발됐다고 했다.

▷안정적 공연장 확보·홍보력 강화 필요=주요 공연장 공사로 장

소 확정이 늦어졌다. 우여곡절을 거쳐 개막 공연장 등을 정했으나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

홍보력도 취약한 편이었다. 개막 공연 예매 개시일이 7월 16일이었지만 지역 언론에 주요 출연진을 알린 날짜는 지난 4일. 축제 기간 배포한 자료는 행사장을 잘못 표기했다. 단순한 해프닝일 수 있지만 이번이 31회째인 관악제가 보완해야 할 분야다.

전선희기자

전세기로 떠나는 편안한 해외여행

★★ 영업배상책임보험 10억 가임 ★★

2026년도 제주직항 전세기운행 일정

제주직항전세기

몽골(4박5일)

출발일: 8/17, 9/23

패키지 1,590,000원

몽골 노마드전통체험, 칭기스칸 마동상, 테를지 국립공원(거북바위, 아리아발 사원) 조원승마, 자이승전망대, 간단사원

제주직항전세기

중국 장가계(3박5일)

출발일: 10/8, 10/11, 10/14, 10/17

패키지 1,290,000원

보봉호수(유람선포함), 천문산사+귀곡전도+유리잔도, 전신마사지, 황룡동굴, 천문호선소, 천자산 케이블카, 원가계 백룡엘리베이터, 727루, 금편계곡

제주직항전세기

베트남 다낭(3박5일)

출발일: 11/19, 12/31

패키지 1,290,000원

대성당, 67미터 해수관음상(영응사), 미케비치, 마블 마운틴, 투반강 투어, 호이안 옛시가지관광, 바나산 (골든 브릿지, 고성체험)

제주직항전세기

필리핀 마닐라(4박5일)

출발일: 12/17, 12/21, 12/25, 12/29

패키지 1,290,000원

파상한폭포, 마일화산 보트투어+기와 스파, 마닐라 시내투어, 오카나 리조트 분수쇼

공통사항

· 여행상품 가격 포함내역: 유류항료, 공항이용료,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 불포함내역: 부가세, 가이드 · 기사봉사료, 상급차지, 매너티, 선택관광경비, 기타개인비용 · 최소출발인원 10명기준 · 4성(준4성)이상 2인1실 · 기획여행보증보험 2억 가임, 여행자보험 2억가임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T. 064)746-6900

관광사업등록번호 제주-90호 제주시 연복로 92 천원빌딩 1층

T. 064)742-4938

관광사업등록번호 제주-265호 제주시 신광로1길 10, 연동하산맨션 204호

여행정보서비스 바로가기